설비에 의한 안전사고는 절대 용납 못해

76년 『정화특수고무공업사』로 시작하고, 92년 『정화폴리테크공업 주식회사』로 새 단장한, 산업용 고무가공업의 외길 30년... 오늘에 이르러서는 방식(防蝕)라이닝 분야와 제철 및 제지를 포함한 고무롤라, 성형품 분야에서 한국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방식(防蝕)라이닝 분야에서는 국내 최고봉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가운데, 기술력만큼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있어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중소기업으로 거듭 나기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 김성대 대리와 무재해 무사고의 정화폴리테크공업으로 가꿔가고 있다.

머리말

대지 9,010㎡, 건물 5,343㎡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공간, 시화공업단지 내에서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설비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건의 사고도 없다.

원료 고무에 배합제를 섞어 고무를 생산하는 공정을 거쳐 고무를 철심에 일정한 두께에 맞춰 120℃에서 140℃로 가황시킨 후 선반, 연통 연마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공정에 오늘도 무사고 무재해는 지속되고 있다.

확고한 안전마인드가 자율안전의 싹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뿌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안전해야할 필연성이라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가 사원의 사기저하와 기술인력의 입원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기업에 큰 타격을 줍니다』는 경영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할 이유라는 것이 이정구 대표이사가 확고한 안전마인드를 가지게 하는 것들이다.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안전마인드는 사업장에서의 무사고 정화폴리테크공업으로 이어졌다.

특히 설비에 있어서 사소한 안전사고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이곳에서는 설비의 안전을 중요시 여긴다. 이정구 대표이사는 안전보호구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돈을 아끼지 말라고 한다.

이러한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안전의지 뿐만 아니라 매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임원들의 모습에서도 생산보다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는 모습이다. 공장장, 관리전무, 이사 등 정화폴리테크공업의 임원진

들의 안전 점검은 지난 몇 년간 단 한건의 사고 없는 사업장을 이끌어온 근간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에서일까? 현장에서의 모든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점에는 안전덮개가 자리 잡으면서 작업자의 모습은 안전하고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다.

무사고에 High-Five 운동

고온, 롤러, 위험물질을 취급하는데 있어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은 필수이다. 그 만큼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정화폴리테크공업에서는 사망재해 위험이 높은 5대 위험작업으로 선정하고 노사가 협력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High-Five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고무를 만드는 초련공정에 사용되는 롤러기에 작업자의 손가락 협착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롤러기 안전』을 선정하고, 대부분의 조형물이 중량물로 이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크레인을 두 번째 안전 항목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지게차 운반시 작업자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지게차 안전과 작업자 손말림 위험이 있는 연마공정에서의 선반작업 안전, 라이닝을 하기전 밀폐 공간에서 유기용제인 접착제 도포 공정에서 가스중독에 따른 위험에서의 산소결핍 안전을 마지막 안전 사항으로 선정하고 전사적으로 추진하면서 지금까지의 무사고에 High-Five를 두고 있다.

안전의 동반자

동반자의 사전적 의미는 "짝이되어 함께하는 사람,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다.

정화폴리테크공업 가족의 안전에 뜻을 함께하고 지난 20년 동안 짝이 되어 함께 해 온 곳!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가 바로 정화폴리테크공업의 동반자이다.

안전협회 김성대 대리는 이곳의 안전담당자 권정관 이사에게 느끼는 바가 크다고 한다. 기업의 임원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 마인드가 확고한 이 곳의 근로자들도 안전을 위한 행동, 수칙 등 모든 것을 잘 지킨다고 한다.

이런 모습은 중소기업에서 보기 힘든 모습으로 경영자의 안전마인드가 현장에서 어떻게 표출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다.

앞으로도 정화폴리테크공업의 방식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안전은 기본이고 지금보다 안전보건시스템을 한단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산지회와 안전의 동반자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최종덕 기자〉

중소기업의 안전은 자율보다 규제가 효과적

▲ 권정광 이사

안전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를 안전하게 하는 모든 것이 특별할 뿐이지요. 그리고 안전의 목표는 예방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안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부분은 이러한 일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에서 산업재해가 증가한 것을 보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중소 산업현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매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보다 강압적인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안전 수준은 선진국에 가깝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도 과연 선진국 수준일까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한 낙후된 안전의식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전수준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안전협회와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해 오면서 내적으로는 근로자의 의식을 높였고, 경영자의 적극지원으로 대기업 수준 못지 않게 안전관리를 이행해 왔습니다. 지금의 수준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렇듯 산업전체도 아니고 한 기업에서 안전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한 국가의 안전수준을 높이는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급하고 실적 위주의 안전이 아닌 근본적인 의식변화로 안전관리가 우리나라에도 정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